

옛것에서 오늘의 지혜를 배운다

서점가 '고전읽기'의 새로운 바람

서화담이 길에서 울고 있는 사람과 만났다. 그는 다섯살 때 눈이 먼 채 20년을 살아온 소경. 그런데 그날 아침나절에 집을 나와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길을 잃고 말았다. 대문들이 서로 엇비슷해서 도저히 집을 찾을 수 없었다. 서화담은 그에게 '도로 눈을 감아라, 그러면 곧 집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소경은 다시 눈을 감고 지팡이를 두드리며 익은 걸음걸이로 걸어서 곧장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연암집》《열하일기》 등에서 연암의 빼어난 산문 95편을 엄선해서 우리말로 옮긴 연암 산문선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김혈조 옮김, 학교재)의 표제작 줄거리이다. 과거라는 시간의 테두리를 벗어나 감동을 안겨주는 글이다.

경제난국 속에 '동양고전'의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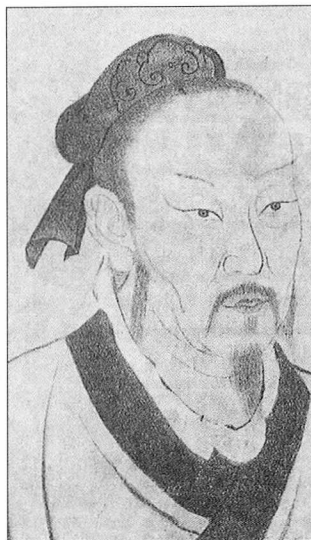
고전읽기의 바람이 경제난국에도 불구하고 그 밀도를 더해가고 있다. 공·맹과 노·장의 그늘에 가려져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동양고전의 번역 출간은 최근 출판계에 더운바람을 형성하고 있어 특이하다. 교보문고 동양고전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박동욱씨는 "요란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나간다"며 "아직까지는 장년층 독자가 많으나 20~30대 독자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동양고전의 출간은 크게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게 역주 해설하거나, 동양고전을 원재료로 삼아 이를 주제별로 발췌하는 두 방향으로 나뉘는데, 최근의 동양고전 관련서는 주로 원저를 한글세대에 맞게 풀이한 책들로서 독자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도서출판 동문선이 중문학자 임동석 교수(전국대)와 손잡고 10년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출간하고 있는 <한전대계>. 일반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끄는 책은 이 시리즈의 한글 번역부분만 따로 모은 '한글고전총서'로, 최근까지 《설원》《안지춘추》《수신기》《한시외전》《세설신어》《전국책》《잠부른》 등이 나왔다.

'설원'은 중국 한나라의 유향이 쓴 설화집이다. '임금의 도리' '신하의 처신술' '근본 세우기' '은혜에 대한 보답' '본질로 돌아가기' 등의 이야기 속에 선현들의 일화가 실

경제난파에 휘몰린 이즈음 서점가에는 동양고전을 찾는 독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답답하고 불안한 세대에 처한 현대인의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동양의 지혜에서 현재의 혼란을 풀어나가려는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출간작업이 계속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맹자.



공자.



노자.

려 있다. 송나라 문인 유의경의 《세설신어》는 후한부터 동진시대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의 언행을 통해 고대 중국문화의 총체적 이해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사상이 유향의 책은 예문서원에서 출판되었는데, 중국 도교 선인 70인의 이야기를 다룬 《열선전》과 106명의 여인 이야기를 통해 중국문화의 뿌리를 찾는 《열녀전》이 그것이다. 또 《왕필의 노자》는 미신적 요소와 경학적 형식을 벗어나 '무의 사상'으로 노자를 해석한 명저로 알려져 있다. 《장자》《도덕경》《채근담》《명심보감》《퇴계선집》(이상 현암사) 등도 '다시 읽는 원전' 시리즈의 일부로 독자의 꾸준한 손길이 닿는다.

불안한 현 세대의 반영

이즈음의 고전에 대한 관심은 답답하고 불안한 세대와 문제점을 옛 성현들의 말씀을 통해 근원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술 출판사에서 출간된 《고전읽기의 즐거움》(신승운 옮김), 명청시대의 글을 모은 《마음을 비우는 지혜》(정민 엮음)와 중국 명가의 가훈집 《아들 딸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김중섭 엮음) 등은 동양의 지혜에 기대어 현대인의 삶의 지혜를 얻으려는 기획으로 역시 독자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책들이다. 《고전읽기...》는 강희명 박지원 이규보 등이 쓴 글 47편을 모았는데, 각 편의 내용이 쉽고 재미있으면서 삶의 정곡을 찌르는 멋도 있다. 술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나랏말

씀' 총서는 고전의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아담하면서 부담없는 판형으로 '읽고 생각하는 고전'의 이미지를 갖춰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창작과비평사에서 출간한 《선인들의 공부법》(박희병 엮음)과 《한국고전시가전》(임형택 고미숙 엮음)도 국어사전 없이 읽어낼 수 있으면서도 고전의 맛을 잃지 않는 품위를 간직하고 있는 책이다. 《선인들의 공부법》은 서양 근대의 학문관과는 다른 동양 전통의 학문관을 보여준다. 공자·왕양명 등 중국 유학자 6명과, 이황에서 최현기까지 한국 유학자 10명의 문장이 실렸는데, 가르치는데 인색함이 없던 공자의 교육관과 "우주를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야 옳다"는 다산의 호연지기 등도 보여준다.

《한국고전시가전》은 향가·고려속요·악장·시조 등 각 시대의 노래와 함께 고려 민간가요를 한시 형식으로 기록한 소악부와 잡가까지도 다뤘다. 과부의 외로움을 읊은 조선 후기 서민가사 《텐동어미 화전가》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소개된 노래다.

소설가 조성기씨가 쓰고 열림원에서 펴낸 고사성어 해설집 《잃어버린 길을 찾아서》와 명심보감 속 교훈들을 뽑아낸 《잃어버린 거울을 찾아서》도 눈길을 끈다. 《잃어버린 길을 찾아서》는 얼핏 보면 혼란 고사성어 해설집 같지만 그것보다 더 깊고 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부부관계가 거울 깨지듯 깨진다'는 뜻쯤으로 알고 있는 '파경'은 '이혼'이 아니라 부부가 사정이 있어 잠시 해

어지면서 거울을 두 쪽으로 쪼개 다시 만날 날을 위한 증표로 삼았던 일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알려준다.

중국·중동의 정신세계까지 폭넓어

《사기》(까치)와 《춘추》(살림터)의 완역(서정기 옮김)은 동양고전 번역의 커다란 성과로 내세울 만하다. 《사기》는 중국 한나라 때 사마천이 상고의 전설적인 제왕 황제시대에서 기원전 1세기 초인 전한 무제시대에 이르는 역사를 서술한 130권으로 이뤄진 방대한 역사서. 과거 혼란기의 현장에서 오늘날의 혼란을 생각할 수 있는 책이다.

완역·평역·소설체·극화체 등 번역의 양태도 다양하다. 또 중국이라는 공간적, 정신적 한계도 벗어나려는 추세다. 《티벳사자의 서》가 정신세계사에 이어서 시공사에서도 출간되었고, 《코란》도 영림카디널에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듯이 중동까지 정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양고전은 과거를 배경으로 하지만, 내용은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공통점을 끌어안고 있다. 열림원 정은숙 주장은 최근의 동양고전에 대한 새삼스런 관심에 대해 "동양고전은 생활 주변에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뿌리부터 생각해 한다"면서 "근본적인 질문과 대답이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나, 안식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성수〉